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 박차

추진위 회의 연구·발전 방향 논의 AI 센터 연계 경쟁력 제고 제시 조속 설립 위한 포럼 등도 제안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다산빌딩에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명호 전남대대의 교수를 비롯한 추진위원들과 김한중 장성군수, 담당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주 위원은 "세계적인 심뇌혈관 연구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단계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진 위원은 "실시단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영근 위원은 "연구소 인근에 들어서는 AI(인공지능)센터 연계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고, 최고 수준의 분석장비를 확보해 독보적 연구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의현·이상욱 위원은 병원·환자 유치방법 논의와 연구소 조속 설립을 위한 포럼 등의 활동을 제

안했다.

이와 관련 정명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성공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선 임상사양, 기초연구센터·병원 연계, 의료산업단지 유치 등 다각도로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구소 유치를 천명한 이래 꾸준한 노력 끝에 지난해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 및 개발, 심뇌혈관질환 임상정보 확보, 공익 목적 첨단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며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 계획이다.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기반산업 3대 축을 형성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건립 규모를 추가 검토·협의해 대전지역 2만 4255㎡, 연면적 1만 3837㎡, 사업비 769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산업단지 간 네트워크 구축, 연구원 정주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질병관리청에 잘 전달하겠다"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성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성북동 민관 힘모아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나주시 성북동이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성북동(동장 나선미)은 최근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텐트에서 생활하던 독거노인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웃 주민의 세심한 관심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집이 물건과 옷가지 등으로 가득 차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텐트에서 생활하던 노인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성북동 '우리동네 복지지킴이'가 먼저 나섰다. 공동대원들은 집 안의 쓰레기와 물건을 정리하고 꼼꼼한 청소로 내부를 비웠다.

이후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본격적인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도배 전문가 김도현 씨는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해 내부를 단장했으며 중앙건설 황귀진 대표는 낡은 담장을 보수하고 외관 정리에 힘을 보탰다.

또한 자선주택 이극 대표는 천장을 견고하게 보수했으며 대명건축 박종재 대표는 안전하고 튼튼한 방문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새론집구조 현정 대표는 겨울철 따뜻한 생활을 위한 침구 세트를 지원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은 어르신은 "깨끗하고 아늑한 집을 보니 마치 새 삶을 선물 받은 것 같다"며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 앞섰는데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아미쌀 6000포대 부산 영도구서 직거래 주문

장흥군은 지역 대표 쌀 브랜드인 아미쌀과 찰쌀 6000여 포대가 부산시 영도구에서 직거래로 판매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영도구 청학동 수변공원에서 열린 '정남진 장흥 쌀 팔아주기' 행사는 장흥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직거래 판매에서는 전남 10대 브랜드쌀인 아미쌀과 찰쌀 6000여 포대가 주문돼 총 3억 9000만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양 지역 새마을회는 1998년 11월 동서화합을 목표로 자매결연 후 문화·예술·체육·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년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의료 취약지 찾아가는 함평군 의료서비스 호응

의료 취약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함평군의 건강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건강드림 행복버스'가 재운영되며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행복버스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발 관리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 의료진과 전문가가 타고 있다.

외출이나 이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건강검진과 양방·한방·치과 진료는 물론 물리치료와 보건교육도 실시한다. 발 마사지와 치료 프로그램도 추가되며 다채로운 구성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2011년 시작된 행복버스는 함평군의 대표적 주민 건강 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관내 의료 취약 경로당 136개소를 선정해 주 4회 운영된다.

올해에 157회에 걸쳐 5000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

이상의 함평군은 "외출이 어려운 겨울철에도 행복버스는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멈추지 않고 운행할 계획"이라며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024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가 열린 고인돌 유적지 일원.

화순군 릴레이 가을축제 관광객 100만여명 찾았다

두달간 다채로운 축제·문화행사

화순군은 10월 화순적벽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다채롭게 진행된 가을축제·문화행사에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10월5~6일 이서 적벽 일원에서 개최된 제37회 화순적벽 문화축제 '슬링슬링 적벽탐구'에는 화순적벽의 풍광을 관람하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으로 버스투어가 만원을 이루면서 3만여 명이 방문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

서 10월28일부터 17일간 펼쳐진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코스모스, 맨드라미, 국화 등 66만1000㎡의 가을꽃이 어우러지면서 연인원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다.

11월2~3일 도암면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된 제25회 화순유문문화축제 '싸목싸목 운주마실'은 지역문화축제로는 이례적으로 5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대성황을 이뤘다.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을 기념해 11월2일 야간에 진행된 '가을밤 콘서트'에도 6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화순 최초의 크리스마스 축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는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2만7000

여 명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KBS열린음악회, 공식식 가요제, 전남아트박람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 등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구북읍 화순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구축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해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화순은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꽃길 음악분수대와 개미산 전망대, 전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